

英國은 본격적으로 AIDS의 전파 예방 및 퇴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연일 「빅벤」(하원 의사당)에선 정부의 적극적인 AIDS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소리가 높고 TV에서는 다 죽어가는 AIDS환자가 직접 출연하여 시청자를 향해 「당신들도 무사할 줄 알아./ 어디 두고 보자고./ 아./ 너무 억울해. 동성연애를 해 본적 없는 내가 병에 걸려 죽다니./」하며 절규하는 그야말로 보기에는 섬뜩한 특집프로를 방영하였다. 각 자선단체들이 앞 다투어 「헬프라인」이라는 전화상담을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 죽음의 死者

# AIDS의 정체

### 英國의 AIDS 관리

지금 세계는 현대의 흑사병이라고도 불리는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확산에 열병을 앓고 있다. 매스컴은 연일 AIDS 관계기사로 떠들석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케냐에서 귀국한 60대 교포의 사망으로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처음엔 이 질환이 남성 동성연애자나 마약중독자를 중심으로 발병전파되는 性病으로 알고 못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느님의 형벌로 인식되었으나 정상적인 性生活을 갖는 사람이나 어린이에게 까지 번져가자 이 병의 예방에 부심하게 된 것이다.

필자가 연구차 머무르고 있는 인구 8만 남짓의 대학도시 「케임브리지」에도 이미 6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 두명은 사망하고 네 명은 대학병원인 「아덴부르크스」병원에 입원되어 치료를 받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김진규 통신원

편집자注:

현재 영국 캠브리지대학에서 교환교수로 일하고 있는 서울 의대 金辰圭교수(건강소식 편집위원)가 AIDS에 관한 영국의 현재 상황을 소개해 왔다.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 AIDS에 관한 우리의 관심도 실로 대단한 바 있다.

김교수는 앞으로도 영국이나 기타 유럽지역의 건강정보를 수시로 건강소식 독자들을 위해 送稿해올 예정이다.

### 정부장님께

저는 홍보부여러분의 성원과 후의에 힘입어 이곳 영국에서 건강히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 다달이 보내주시고 계시는 「건강소식」은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없는 우리식구들에게 크나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건강소식의 알찬 진용을 접하는 것도 물론 반갑기도 하고요.

이곳이나 한국이나 AIDS가 한창 화제꺼리이고 우리도 머지않아 대국민홍보를 절실하게 느낄때가 올것 같아 줄상을 정리하여 몇자 적어보내니 취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내 건강하시옵고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가호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1987. 3. 5

캠브리지에서 김진규 올림

고 있다. 작년 말 까지 英國의 AIDS 발병 환자 수는 610명(표 참조) 이었는데 그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93 명이 목숨을 잃었다. 더구나 금년 정월 한달만에 발병된 환자 수가 작년 전체의 반인 280여명에 이르자 英國은 본격적으로 AIDS의 전파 예방 및 퇴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연일 「빅벤」(하원 의사당) 예선 정부의 적극적인 AIDS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소리가 높고 TV에서는 다 죽어가는 AIDS

S 환자가 직접 출연하여 시청자를 향해 「당신들도 무사할 줄 알아! 어디 두고 보자고! 아! 너무 억울해. 동성연애를 해 본 적도 없는 내가 병에 걸려 죽다니!」 하며 절규하는 그야말로 보기에 도 섬찍한 특집프로를 방영하였다. 각자 선단체들이 앞 다투어 「헬프라인」이라는 전화상담을 시작한 것도 이 때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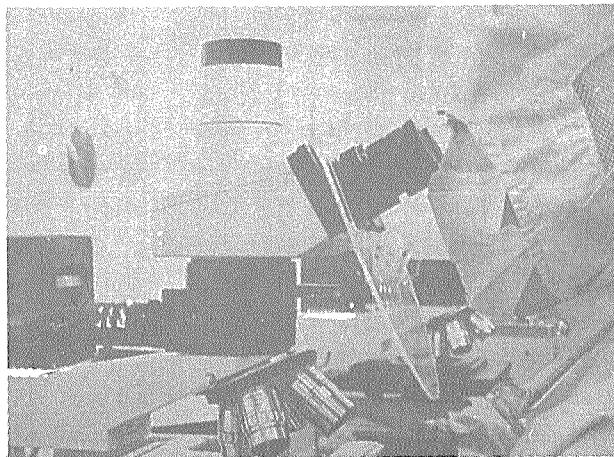
1987년 1월 21일, 英國의 전 가정에 AIDS의 정체, 발병 및 전파경로, 그리고 예방책등을 문답식으로 담은 홍보책

자가 배달되었고 TV에선 「무지로 죽지 마세요(Don't Die of Ignorance)」라는 제하의 홍보프로를 일제히 방영하기 시작하였다. 보사부장관인 「노만 파울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가 AIDS 환자가 격리 수용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을 방문하고 백신 및 치료약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둘러 보았으며 「대처」 영국 수상은 의회에 출두하여 200만 파운드(26억원)의 예산을 대국민 홍보비로 긴급 책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홍보책자를 전 가정에 배달한 달 후 보사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39%의 국민이 AIDS 홍보물을 시청하거나 읽었고 이 중 73%가 AIDS를 예방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약 절반 가량이 아직도 AIDS의 예방에 대해 무지하다면서 홍보의 미흡함을 시인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2월 마지막 주말 BBC를 포함한 전 TV「채널」에서 밤 8시부터 두 시간에 걸쳐 AIDS 특집방송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노라고 발표하였다.

특집방송은 한 마디로 충격적이었다. 국교4년생인 아들과 1년생인 딸 애와 함께 TV를 보던 우리 내외는 곧장 취침을 핑계로 아이들을 이층 침실로 쫓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처」수상으로 분장한 여성 사회자가 야당인 노동당 당수로 분장한 남자 사회자의 손가락에 「콘돔」을 끼워주며 「나는 보수주의자(「대처」수상은 보수당 출신이다)이니까 내게 일(Labour) 보러 오고 싶으면 이걸 반드시 끼고 오세요」하면서 그 특집프로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1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방청객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콘돔」을 사용하느냐, 남자와 여자 중 누가 이것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 등등 기가 막힌 생방송이 이어지고 비상 「콘돔」주머니가 달린 신종 「스커트」를 모델들이 선 보이기도 하였다.

AIDS의 전파를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첩경은 정상적이고도 건전한 性生活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공식 입장을 정리했던 성공회 주교단의 권고는 이미 아득

AIDS의 전파 예방을  
 위해 가장 실질적으로  
 되움이 되는 것은  
 유흥가 절대부를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나  
 전염병 예방법을  
 준용한 엄격한 실태조사나  
 관리니 하는 것 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콘돔을  
 철저히 사용케 하는  
 일이라는 결론을 이들은  
 신봉하고 있다.



히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었다.

AIDS의 전파 예방을 위해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유흥가 접대부를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나 전염병 예방법을 준용한 엄격한 실태조사나 관리니 하는 것 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콘돔」을 철저히 사용케 하는 일이라는 결론을 이들은 신봉하고 있었다.

또한 헌혈자는 철저히 항체검사로 가려내되 적어도 최근 3년간 통상적인 성생활(Casual Sex)을 영위한 사람들 말고는 헌혈도 하지 말라고 권고하자 혈액기근 현상이 도처에서 벌어졌다.

한편 AIDS 항체 검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검사해 주되 특히 최근 3년간 통상적 범위를 넘는 성생활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국민은 꼭 검사를 받기를 권고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자 만나는 사람마다 통상적 성관계의 정의(?)를 구하느라 법석을 떨고 있다.

보사장관은 문제의 특집방송을 내 보낸 그 다음 날 저녁에 다시 TV에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 AIDS가 어떤 병이라고 안 국민은 91% 이고 AIDS 예방방법(그들의 결론은 「콘돔」 착용과 오염된 혈액의 접촉 및 수혈 금지)에 확신이었다고 대답한 국민은 90% 이었다고 하면서 마치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모든 국민이 다 알 때까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정부의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었다.

나는 이들의 철통(?) 같은 홍보에 문혀 얼떨떨한 년초를 이 곳에서 보내면서 사상초유의 원거리 전선이던 「포클랜드」 전쟁을 왜 이들이 쉽게 승리로 이끌었

는가를 수궁할 수 있었다.

백신과 치료약의 개발이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AIDS는 전세계 90여 나라에 퍼져 버렸고 보건자 수도 곧 천만명에 이르리라고 한다. AIDS 환자 수가 아직은 이만하고 발병 환경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실로 다행스러

*Number of cases of AIDS in United Kingdom by patient characteristics (cumulative totals up to end of December 1986)*

	Men	Women	Total	Deaths
Homosexual or bisexual	538		538	244
Intravenous drug abuser	7	2	9	2
Homosexual and drug abuser	6		6	4
Haemophilic	25		25	19
Recipient of blood:				
Abroad	3	3	6	5
UK	3	1	4	4
Heterosexual:				
Presumed infected abroad	9	5	14	9
Presumed infected in United Kingdom	1	3	4	3
Child of HIV positive mother	1	2	3	2
Other		1	1	1
Total	593	17	610	293

British Medical Journal 1987. 1. 17일자 발췌

은 우리나라라고 하지만 性を 매개로 해서 전파되는 병에 성역은 없는 것이다. 영국에서처럼 보기에 민망한 홍보가 질실해지기 전에 보다 실질적이고도 철저한 예방 대책이 서둘러 저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케냐」 교포에 이어 두 번째로 죽게 될 AIDS 환자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크게 놀라게 될 것인가를 아울러 생각해 보면서.

(필자=서울의대 조교수·의박)